

# 2024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 1. 회의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24.1.30.	대전MBC 4층 회의실 (대면회의)	7/10	5	2	14	○		

### ○ 회의 참석자 명단

#### ① 시청자위원 명단

손병우 위원장,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4	-	1	12	-	12

### 나. 사업자 반영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합계
건수	12	-	-	12

## 다. 전월(12월)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키워드 2023 보도> 불규칙적으로 방송하다 보니 체계적인 느낌이 들지 않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음.	인력과 계절적 상황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했는데 시청자들이 궁금해 하고 도움되는 쪽으로 기획하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보도	<JMS 판결 보도> 중형을 받은 피고인인데 피고측 기자회견 장면을 방송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음	공판 관련해서 천 명 정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항변권을 준건 아니고 현장 스케치를 하다 보니 그 장면이 나온 것임 <24. 1월 조치>	'23.12월
보도	<지자체 성과 보도> 지자체가 국비를 따오고 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걸 핵심 성과로 보도하는데 시민들과 함께 한 사업들을 평가해 주었으면 함	단체장들의 예산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가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상 추진될지 집중해서 보도하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보도	<서구보건소장 임명 보도> 대전시 행정에서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전문직 우선 임용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심이 필요	보건소장 임명 등 행정상의 원칙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보도	<단신 보도>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아침 뉴스에서 녹음처럼 일정한 톤으로 단신 아이템을 전달하는 방식인데 억양이나 포인트를 넣어서 감정을 실어주었으면 함	긴 형태의 스트레이트는 스토리텔링이 녹아있는 쪽으로 지향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자 전달방식도 고민해 보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교양	<시사M-진행방식 구성>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대화하는 식으로 구성했는데 지루함을 깨는 구성방식이 필요해 보임	제작물 안에서 구현이 어렵다면 전문가들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시도 있게 검토 예정 <24. 1월 조치>	'23.12월
교양	<시사M-송전탑> 지하 송전탑 문제는 화력발전소 폐쇄가 되면 사라지는 이슈인데 중장기 과제도 다뤄주었으면 함	송전탑 아이템은 재작년 '철탐공화국'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노력하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교양	<시사M-에너지 자립도> 충남은 에너지 자립도가 거의 1등이고 대전은 거의 꼴지인데 이런 공존 상황들을 다뤄주었으면 함	우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 프로그램을 다룰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교양	<시사M-전세사기> 전세 관련해서 계속 불안감만 강조하지 말고 대안의 실현 가능 여부와 안정적인 방법도 제시해 주었으면 함	향후 피해를 줄이고 제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구현할지 고민하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교양	<오늘M-지역 소재> 타 지역 이야기가 더 많이 방송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더 많이 다뤄주길 바람	인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꼭지를 제작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역밀착형으로 제작하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교양	<문화가 소식> 문화와 예술은 다른 용어인데 막연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술부분도 깊게 다뤄주었으면 함	문화와 예술을 분리하는 건 쉽지 않음. 문화를 다루는 유일한 코너로 유지해 나갈 예정이고 양과 깊이의 문제는 고민하겠음 <24. 1월 조치>	'23.12월
기타 (시청자의견)	<라디오캠페인 멘트 수정 요청> 화재 예방 캠페인중 "가능한 주변에 빨리 알려"에서 "가능한"이 아닌 "가능한 한"으로 수정 바람	요청한 부분을 수정해서 즉시 반영함. <23.12월 조치>	'23.12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사항 없음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2024년 1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임기)*
위원장	손병우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사)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단체	23.05.01~25.04.30
부위원장	박주영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23.05.01~25.04.30
위원	마정미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단체	22.05.01~24.04.30
위원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소외계층대변	22.05.01~24.04.30
위원	박미숙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경제단체	22.05.01~24.04.30
위원	장래숙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단체	23.05.01~25.04.30
위원	김영진	사회적협동조합혁신청 이사장	대전청년내일센터	소외계층대변	23.05.01~25.04.30
위원	이인복	원도심문화예술행동 사무국장	원도심문화예술행동	문화단체	23.05.01~25.04.30
위원	윤지석	대전광역시의회사회 부회장	대전광역시의회사회	과학기술단체	23.05.01~25.04.30
위원	이진희	대전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인권단체	23.05.01~25.04.30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서산 시내버스 파업 보도> 지자체마다 버스조합에 비슷한 돈을 줄 텐데 다른 지자체는 어떤 상황인지 비교 분석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서천 전통시장 화재 보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잘 보도해 주셨는데 화재 원인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게 잘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0시 축제 보도> 올해는 축제기간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금산군 대전시 편입 보도> 편입 이슈를 행정적, 정치적인 입장이 아닌 실제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보도를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충선 관련 보도> 신당과 탈당 등 정치공학적 보도가 아닌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지방시대위원회 보도> 지방자치 관련 보도는 지역에서 중요한데 단신처리만 해서 아쉬운데 자세하게 다뤄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보도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보도>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정부 지원프로그램이나 절차 소개 등의 보도를 해줬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충선 분석 토론> 서울에서도 방송하는 충선 내용이 아닌 패널들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분석을 해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지역살리기 메가시티> 메가시티가 지역소멸의 해법처럼 반드시 해야 하는 논조로 진행을 했는데 반대 입장들도 다루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교양	<시사M-원인과 해법 제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원인 분석과 해법 제시가 조금 아쉬운 느낌을 받음	회의록 첨부	○		
교양	<보이스피싱 TV캠페인>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젊은층을 겨냥한 TV캠페인을 방송해 주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기타	<지역민과 소통하는 슬로건> 대전, 세종, 충청을 줄여서 '대세 충청'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민과 소통했으면 함	회의록 첨부	○		

## 2024년 1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7명)

손병우 위원장,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김영진 위원, 윤지석 위원, 이진희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이상욱 편성국장,  
정수진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2024년 첫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0분의 위원 중에서 7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입니다. 올라온 의견은 총 2건입니다. 한동훈 보도 관련 1건 그리고 배수로 공사 민원 1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없으시면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오늘도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시청자를 대표해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시청자 의견을 잘 모아서 전달해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님부터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희 위원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훑어보았는데 60주년 연중캠페인으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은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보여주었고 '인생내컷'과 '오늘M'의 느낌은 지역 방송답게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대전MBC가 지역민들과 사람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2024년이 되면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뉴스에서는 냉철하게 문제되는 부분들을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8월 말에 시작한 '시사M'이 1월 18일부로 마무리 된다고 하는데 다른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따뜻함과 냉철함으로 비판적인 부분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준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다음은 윤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윤지석 위원

저도 '시사M'은 참 안타깝네요. 관심 있게 봤던 프로인데 다른 포맷으로 바뀐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1월 18일 방송된 충청권 메가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것이 서울에 편향되어 있는데 지역 방송으로서 지역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메가시티는 부울경은 안 되는 걸로 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은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중요한데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세는 충청이다' 하면서 '대세 충청'이란 모토를 지역 방송에서부터 피우면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세충'하면 별레 같은 느낌이지만 '대세 충청'으로 슬로건을 잡아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가시티를 만들려면 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각 지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월 11일 방송된 보문산 케이블카 관련해서 타 지역에서도 케이블카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중에서 겨우 2개만 수익을 내고 있다고 나오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세금 1900억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만들고 다시 또 철거하는데 세금을 들이는데 과연 보문산 케이블카가 시민들이 모두 원해서 하는 건지 지역 정치인의 주장으로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타러 올지 궁금하고 대안으로 단순한 케이블카가 아니라 대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망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1월 10일 방송된 서산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서 지역에서 똑같이 100억 정도를 버스 조합에 돈을 주고 있는데 과연 논산군이나 금산군 등 다른 군은 어떤지 비교해서 심층 취재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AI를 이용해서 미니 공유버스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보여주고 외국에는 우버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우버를 반대하

고 있는 상황이고 저 같은 경우 외국 학회에 참석하다 보면 우버가 참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갈등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언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월 23일 방송된 서천 화재 사건 관련해서는 시청자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빨리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느 때부터 대형 재난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는 세대가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항상 '내 탓이로다'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을 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물론 화재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재난조차도 정부와 또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프로세스가 사회적 통념으로 굳어져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보도를 할 때 안타깝고 눈물짓는 모습도 보도하지만 냉철하게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런 것조차도 국가나 정부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인지를 한번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했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요. 물론 원인이 다 밝혀져야 알겠지만 정격 용량의 전원 차단기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화재가 났을 때 모든 게 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나이들은 사람으로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0시 축제 관련해서 지역상인들, 환자분들 또는 동네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0시 축제 장소에 병원들과 지하상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지하상가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고 의사들조차도 반대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아픈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0시 축제를 올리는 이들을 더 늘린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소식을 언론에서 그쪽 담당자나 정치인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자세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보도 부분 짧게 말씀드리면요. 보도 내용의 피드백은 아니고요. 최근 금산군의 대전 편입 관련 이슈로 뉴스가 나왔는데 MBC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전달하셔서 따로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얘기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역과 지역이 합쳐지거나 분할되는 이슈가 있을 때 주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장분들이나 지역 의회의 입장들 혹은 행정 편의적으로 입장이 다뤄지는데 실제로 대전시와 금산간의 편입이슈와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시민 공론화 과정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을 논의하는데 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민들 간의 소통은 없는가, 물론 주민투표 과정에서 공청회 같은 건 있겠지만 형식적인 부분 말고 제대로 된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왜 없고 준비되지 않는지 이 부분들도 한 번쯤 주목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편입 이슈들이 너무 행정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슈 중심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사M> 관련해서는 너무 피드백을 많이 해서 부담이 되셨던 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1월 4일 방송된 총선 얘기가 주로 나왔었는데 이 시기에 다뤄야 될 이슈라고 생각했지만 내용 자체가 패널들이 잘 말씀하시긴 했지만 서울이나 전국 방송의 시사 패널들이 얘기하던 내용과 우리 지역의 정치 관련 얘기가 크게 다른 점 없는 대동소이한 이슈들로 프로그램 내용이 진행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지역 방송에서 지역 정치를 이슈로 총선을 다룬다고 한다면 지역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이라든지 혹은 정치적 사안들 위주로 얘기할 것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지점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아침에 흔히 듣는 시사 정치 라디오 내용과 1월 4일에 방송됐던 내용이 크게 차이점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월 18일 방송된 메가시티 관련해서는 패널분들 말씀도 굉장히 설득력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짜임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용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구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지방 소멸이나 인구소멸 저출산 관련해서 그 해법으로 마치 메가시티로 꼭 가야 되는 것처럼 방송이 진행이 됐거든요.

패널분들과 진행자분이 우리 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메가시티가 반드시 필요해라는 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로 계속 됐었는데, 충남과 충북 메가시티 관련해서 이게 진행되면 우리 지역에 더 불리할 거라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실제로 있고요. 천안, 아산과 같은 충남 북부권은 이런 메가시티보다는 경기도와의 접점들을 더 늘려나가는 것을 원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메가시티가 마치 우리 지역 모두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는 논조의 진행보다는 실제로 반대 입장들도 같이 다루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메가시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지역의 메가시티를 무조건 다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못하고 있는 이슈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료화면 수정이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요. 권역별 20세에서 29세 인구 이동자 수 통계청 자료가 있었는데요. 호남권, 충청권, 경상권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얼마나 많이 유입되느냐

에 대한 이미지 자료였습니다. 저도 활용해 보려고 자세히 봤는데 그 안에 정확한 통계 수치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숫자는 있는데 단위표시가 없고 충청권 유입은 -40이고 호남권은 -19인데 원형 그래프는 호남권이 더 크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똑같은 -40도 경상권과 충청권 그래프가 크게 달라서 기본적인 통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비슷한 실수들이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점검해 봐야 할 사항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마정미 위원

지난 11월 12월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못 해드려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사M>과 <인생내컷>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계속 새로운 아이템으로 진행이 잘되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사M>에서 지역살리기 프로젝트 메가시티 문제, 서산 버스 운행 중단 사태, 총선 전망을 다뤘는데요. 다 중요한 주제이고 잘 다룬 것 같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인터뷰도 했고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도 있었는데 뭔가 아쉽게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가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니 우선 메가시티 문제는 이것이 과연 정답인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목표치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 사실은 성공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부울경의 경우는 실패 사례인데 뭔가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청사진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서산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 오래 지속됐고요. 대표로 부터 속 시원한 원인을 듣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사M>이 재정비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위한 암중모색의 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더 다채로운 아이템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들면 이슈 브리핑에서 1월 11일 세종시 안개로 다중 충돌 사고와 보문산 케이블카를 다루셨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꼭지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PD가 간다'가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슈 브리핑을 조금만 더 확대하거나 다양한 아이템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내컷>도 여전히 좋았어요. 소재 혹은 인물을 계속 찾아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좋은 분들을 찾아내시는 것 같아요. 1월 17일 근대 건축 연구자라는 분을 찾아서 소재동이라든가 다양한 지역을 소개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 관련해서는 서천 특화시장 화재 보도가 역시 눈에 띄었고요. 지속적인 속보를 내주면서 다양한 각도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 원인과 복구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발화 영상을 찾아서 발 빠르게 단독 보도한 것들도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병우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김정동 위원

<시사M>은 그동안 의욕도 높았고 다른 포맷을 채용하다 보니 저도 가장 주의 깊게 봤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만큼 기대가 컸던 것 같고요. 어쨌든 내부 사정이든 방향성이든 고민에 따라서 움직이실 테니까 다시 한 번 기대는 하고요. 총선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불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보인 것 같아요.

일상적인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럴 수 있는데 총선을 전망하고 고민할 때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여전히 신당이 생기고 누가 탈당하는 정치 공학적인 이슈는 일상적으로 늘 하나니까요. 집중적으로 쳐다볼 것은 앞에 다양한 인터뷰들을 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각 정당들은 이 내용들에 대해 어떤 고민이 있는지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줘야 시민 입장에서 이걸 보고 총선을 바라봐야 되고 투표를 할 기준을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역할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은 들었고요.

메가시티 관련해서 앞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생각은 했어요. 실제 미국 사례를 가지고 메가시티를 얘기했는데 거기는 생활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다른 구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개별화 해가면서 또 한쪽에서는 메가시티를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데요. 우리만의 고유한 것들도 있고 물론 협력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느 순간에 특 던져진 이것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매몰된 것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서천 화재 보도 관련해서는 작년 현대아울렛 보도도 그랬지만 대전MBC에서 단순히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라는 보도를 발빠르게 하였고,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 등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아울렛 때도 그랬지만 이번 서천 화재 때도 점검 과정이나 제도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을 못 챙겨서 나는 인재로 볼 수도 있는 증거들을 계속 속보로 단독으로 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이

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쳐 나가고 다시 발생하지 않게 짚어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보도는 단신 처리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관련한 중요한 정책인데 이게 단신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나 분권 관련된 정책이 거의 사라지다 보니까 단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방분권이나 자치 관련 내용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짚어봐 주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자세한 얘기 감사합니다.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박미숙 위원

저는 건강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이번에 장수를 주제로 건양대 김희수 총장님이 90세가 훨씬 넘으셨던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 비결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라는 것을 의미 있게 보면서 100세 시대가 정말 눈앞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만 요즘 저희 직원들을 옆에서 보면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면서 건강도 돌보지 않고 너무 편하게 생활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도 식단 관리를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다뤄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시사프로그램들은 딱딱하게 진행되는데 그래도 <시사M>을 편성하실 때보면 다큐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중단이 됐다고 하니까 재정비돼서 빨리 다시 시청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요즘 저희 경제인들은 IMF 때보다 경기가 더 안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저희 주변 회사들도 경매로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뉴스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인터뷰를 보니까 기업들을 대변해서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 교육을 시킬만한 인력이 정말 부족하고 힘들거든요. 혹시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기회가 된다면 방송해 주시면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행은 됐지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기업들이 말로만 시행이 됐네 하고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아침에 저희 회사 직원이 너무 심각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메일이 해킹 당해서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문구점에서 봉투를 사고 은행으로 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 같아서 은행 창구까지 따라가서 은행 직원한테 돈을 내주지 말라 했거든요. 그리고 은행직원이 전화를 한 후에 돈을 내주지 않아서 해결은 됐거든요.

요즘 보니까 MBC 라디오에서 국악 버전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돌다리도 두들긴다는 식으로 의심을 한번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그걸 믿고 피해를 당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대전MBC에서 TV캠페인을 하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손병우 위원장

생생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이스피싱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작권 침해 사냥꾼과 브로커들이 한글 폰트 관련해서 매크로 돌려서 전국 대학교 연구소마다 돌려보고선 걸리는 게 나오면 내용증명 보내놓고 겁먹은 조교들 상대로 저작권침해료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주의 하게끔 알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시사M>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마정미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중간 공허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서산 버스 운행 중단과 서산시 감독 소홀 사태 부분에서 일단 버스 운행 중단 부분에 항상 무게 중심이 조금 더 가 있고 서산시의 감독 소홀은 물론 많이 다뤘지만 비중이 조금 덜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앵커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데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 관리 감독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바로 대전MBC 뉴스데스크에서 12월에 보도하면서 ‘회계장부를 자치단체에서 들여다보는 것을 서령버스 측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서산시 건설도시국장 얘기를 인용했던 말이죠.

<시사M>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앵커가 그런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전문가가 계속 순차적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메일로 온 서산시 공식 답변 내용을 읽고 넘어갔거든요. 질문과 답변이 딱 땀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 서산시 공식 답변이 자막으로 처리가 됐는데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소형버스에 인건비 보험료 차량 정비 등이 최우선 사용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공식 답변문이 자막으로 나오고 전문가는 그걸 더 축약해서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게 그냥 답변만 읽고 넘어가는 것은 앵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서산시의 건설도시국장이 했던 얘기... ‘회계장부를 자치단체에서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과 ‘보조금이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관리 감독이 어렵나’ 하는게 이어져 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딱 맞춰 나오지 않아서... 궁금한 걸 질문했는데 답을 내가 들었나 하는 공허감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윤지석 위원님께서서는 타 지역과 비교 취재도 하고 또 다양한 교통 대안도 제시해 주자는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요. 왜 이런 공허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방송들이 시민의 삶과 밀착된 사안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시민을 불편함에 반응하는 대상, 피해를 입은 불쌍한 대상 그래서 언론이나 정부에서 돌봐줘야 하는 대상 이런 주제로 등장시킨단 말이에요. 인식을 하고 판단하고 대안을 생각해 내서 제안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을 해주면 시민들이 그걸 듣고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좋은 제안을 하거나 집단행동이 됐든 언론 인터뷰 발언이 됐든 시민들의 지혜로운 대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자료를 구체적이고 정리 정돈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시민들을 언론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돌봐주겠는가 이 불쌍한 사람들이 정부에서도 외면 받고 업자들은 그냥 등쳐먹으려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돌봄의 대상에서 인식의 주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사M>이 어떤 형태로 다시 탄생하든 방송 형식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요. <시사M>처럼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같이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육성 대화 형식이 갖는 장점이 있거든요. 단점도 있지만 이 육성 대화 형식이 갖는 장점을 어떻게 하면 살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프로그램에 답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데스크에서 다뤘던 것을 좀 더 심층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받아주는 식의 구성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가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청자 위원님들의 의견은 모두 들었고요. 회사측 답변으로 넘기겠습니다.

#### 최기웅 보도국장

먼저 윤지석 위원님 말씀하신 서산 시내버스 파업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봉합됐지만 아마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지역 버스들의 취약한 구조라든지 어떤 재정만 투입되고 있는 상황들이 되게 비슷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버스들의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과 대책은 없는지 향후 계속 주시하면서 기획 보도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천화재 관련해서 윤지석 위원님과 마정미 위원님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형 화재가 나면 안 되는데 정초부터 특화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형 재난 시에 저희가 재난보도 조치에 따라 대응을 하면서 보도하고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취약한 구조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들도 있지만 처음에 화재 원인이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현장에서 기자가 내부 CCTV 화면으로 취재 아이템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일하게 입수를 해서 저희가 그 단초를 밝힐 수 있는 영상을 보도한 건 의미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를 계기로 화재에 대한 안전 진단이 부실했던 지점들, 그리고 안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화재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발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난 재해 보도에 대한 빠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발되지 않게 매뉴얼들이 제대

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석 위원님 0시 축제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도 0시 축제를 작년보다 더 크게 한다고 하죠. 저희도 작년에 처음 보도했습니다만 안전이나 교통 문제들, 교통 대란이 빚어진 부분들도 있고 특히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들이 있습니다. 물론 축제로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부분도 공감하지만 그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수렴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축제 전에 미리미리 사전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금산군 편입 이슈는 처음에 행정단위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물론 총선 전에 애드벌룬 느낌은 나긴 하는데 단순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고요. 금산 군민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도 이슈가 진행되면서 후속적으로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 동의를 하는 문제는 아마 아닐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더 주목해서 취재를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지방시대위원회 이슈는 사건 사고도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뉴스를 챙길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겁니다. 지역 분권과 지역 자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역에 대한 목소리는 사실 지역 방송이 가장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안타깝게 느끼는 지점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소외시 되고 중요한 뉴스가 아닌 것처럼 다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지역에 대한 의제 그리고 지역 이슈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총선 보도들은 재작년 지방선거 때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후보자 중심이 아니라 유권자 중심의 정책 의제들을 발굴해서 역으로 후보자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공약에 대한 의제 발굴 보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차로 2월 중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는 추후에 하겠지만 1차 여론조사는 어떤 의제들을 유권자들이 가장 주목하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의 표심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를 2월 중순에 설계해서 2월중에 여론조사 관련 보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도들을 통해서 지역 중심 특히 유권자 중심의 보도들을 이번 총선에 조금 더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 침체에 관련된 뉴스들은 작년 한 해 많은 대형 이슈들에 묻히면서 우리 삶과 직결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슈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와 관련한 발굴 기획 보도들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처벌과 관련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필요한데 50인미만 기업들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준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문제점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지원이나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들 까지 정부의 미스 매치로 인한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뉴스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서도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아는 분이 보낸 거라 안 볼 수가 없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이더라고요. 휴대폰이 링크로 연결이 안 돼서 불발에 그쳤는데 저희가 보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기업들이 해킹을 당해서 중요 정보들을 갖고 몸값처럼 요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큰 범죄로 볼 수 있는 그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보도들을 설계하고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원자력 설계본부 이전 보도는 저희가 단독으로 발굴 보도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김천 이전 부분을 발굴 보도해서 다각적인 경로로 막고는 있는데 지역 언론의 역할들이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올 한 해는 다양한 특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의제들을 많이 발굴 보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욱 편성국장

이진희 위원님의 지역 중심 사람 중심, 윤지석 의원님의 대세 총청 등 오늘 슬로건으로 참고 할 만한 문구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 활용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사M>중단은 조연출 저연차 PD들을 이끌어 줄 허리 역할을 하는 팀장급 PD들이 부재한 상황이 됐어요. 육아휴직 등 여러 가지 인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시사 프로그램은 항상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연차 PD들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훈련들을 그 기간 중에 정비하고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재런칭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부 팀장급 인력의 문제를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왔던 메가시티 아이템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보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지역 소멸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논의되는 것 같다 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신데 지역 소멸이라는 건 사실 문제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게 메가시티였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다룬 거고요.

올해 1년 계획 중에는 지역 소멸 관련된 큰 이슈들을 시리즈로 다뤄보려고 크게 생각했습니다. 상반기에 재런칭을 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그 것들을 들여다보는 기획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하나로서 메가시티가 먼저 나온 건데 이게 유일한 대안이나 전제하고서 구성을 했던 부분은 재런칭 했을 때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관련 이슈는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상황에서 드러난 이슈들만 정리를 하다 보니 정치 시사 라디오처럼 비쳤을 수가 있는데 라디오 프로그램 '시대공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마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시사M>을 보면서 짚짚하셨던 부분은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런칭할 때 담당PD들이 끝까지 가서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시킴으로써 하겠습니다.

또 박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SB타임에 방통위가 정해진 틀 내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예방 캠페인 등을 방송하고 있거든요. 보이스피싱도 현실적인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들여다보고 제작해서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지난번 윤지석 위원님과 장래숙 위원님께서 0시 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0시 축제의 전반적인 메카니즘과 연출 관련해서 한 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는 답변을 자제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사 사업 가운데 지역 축제 연출 대행 사업이 있습니다. 조달청 입찰 사업 코드가 9901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축제PD와 엔지니어도 있다 보니까 행사를 수주하면 전체적인 축제 연출을 잘 합니다. 쇼도 있고 방송도 같이 연결되고 홍보도 해야 하니까 지역 축제 사업을 연출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TJB도 하고 있고 대전KBS는 직접 하지 않지만 KBS 본사 자회사들...KBSN과 KBS미디어, KBS아티비전 등등 지역 축제 연출 대행 사업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경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이나 국제와인엑스포는 저희가 계속 연출을 해왔고요. 0시 축제는 작년에 이장우 시장 취임하고 처음 시작됐고 0시 프레스축제 개념으로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는 저희가 경합 수주를 해서 문제없이 우리들공원을 중심으로 으능정이 거리에서 4~5일 동안 연출을 한 적이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TJB가 수주해서 연출을 했습니다.

수주 업체 입장에서는 책임감 있게 지적하신 교통 약자 또 지역 경제와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축제 연출이나 구성을 적절히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인 대전시에서는 외형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고 화제를 모은 부분에 대해서만 상당히 홍보를 하는 부분이죠. 올해도 입찰 공고가 떠 있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해야 할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도라든가 콘텐츠를 통해서 충분히 방송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연출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민원이 없도록 잘 연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시의 성과주의나 수치 중심주의에 매몰되다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가려지는데요. 시민들 입장에서 대전시나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어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석 위원

작년에 대전시의사회가 축제장에 의료 봉사를 나갔는데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해서 무료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정동 위원

이상욱 국장님 말씀해주신 제작 인력 풀이 부족한 상황인 건가요? 육아휴직 이슈 때문에 프로그램 편성에 차질이 생길 정도라면 앞으로도 비슷한 이슈들이 계속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상욱 편성국장

현재 가용할 수 있는 PD가 6명입니다. 모두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서 저연차 PD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중간에 팀장급 PD들이 총원되지 않아서 잠시 결방을 결정한 것이고요. 지역사 상황은 뻐합니다. 인력을 총동원해도 TV PD 8명이 자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표 간사

마지막으로 손병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사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병우 위원장

2024년도는 시민들 대화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시기가 될 텐데요. 대전MBC가 지역사회 여론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한 해가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환균 사장

인력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지만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시사프로그램에서 대안 제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제대로 보여주면 거기에 이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사프로그램을 할 때도 “선불리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지 마라”, 또 제가 어린 시절에 PD수첩을 할 때도 부장, 국장이 그 아이템을 안 했으면 할 때는 “대안이 있어?” 라는 말을 꼭 합니다.

저는 반대로 대안을 선불리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 문제를 제대로 보여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고... 그렇게 역할을

구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선불리 대안으로 달려 들어가면 이게 뭔지 모르고 심각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대안 찾기는 어렵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가벼운 대처법입니다. 저도 한 번 당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 통화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당혹해 하지 말고 바쁜 척 해야 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디 소속, 어느 부서인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얘기하게요. 그리고 10분 후에 다시 전화 드린다고 하고 끊는 거예요. 10분 정도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텀을 가지면 차분해 지거든요.

처음에는 광역수사대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부서, 이름, 전화번호 모두 없어요.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근데 수사본부라고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자꾸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끊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캠페인으로 만들면 그것을 또 피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 같긴 한데... 오늘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